

목포해수청, 항내 공유수면 일제점검 실시

- 6월19일~28일, 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·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·사용 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.

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10개소,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,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3개소, 부잔교 등 계류시설 3개소, 해수 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 등 총 43개소이다.

주요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, 무단 점용·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, 해상교통 위해요소 등이다.

공유수면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,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

목포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“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기관명	목포지방해양수산청	책임자	과 장	김숙현 (061-280-1670)
담당 부서	해양수산환경과	담당자	담 당	김 철 (061-280-1671)
			주무관	김하늘 (061-280-1709)